

# “플랫폼 자율규제, 분야별 모델 필요… 유연하게 적용해야”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 “대상 특정 우선  
넓은 범위 규제 실효성·타당성 의문”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분야별로 모델을 만들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위한 민간 기구가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가 중심이 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가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대상에 대한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가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정의와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넓은 범위에 대한 플랫폼 규제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계 교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규제 대상 및 대상 행위 등을 확정하고 그 요건을 설정하는 것과 규제 수단의 실효성, 비례성 파악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혁신산업이면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지닌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은 규제 욕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 내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탐색하고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이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플랫폼 내에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단일한 협의체나 단일한 모델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탐다운 규제 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한 자발적 자율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이뤄져 자율규제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과 일률적인 모델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모델 형성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업종별 혹은 규제의 쟁점별로 적합한 자율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율규제 역량을 서서히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교수는 “온라인 플

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기본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어야 한다. 공적 규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공적 규제 시험은 맞지 않다.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실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공정 규제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 자율규제는 사적 자치의 연장선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기구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꼽았고, 반드시 법정 기구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이 함께 규제를 설계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김 교수가 설명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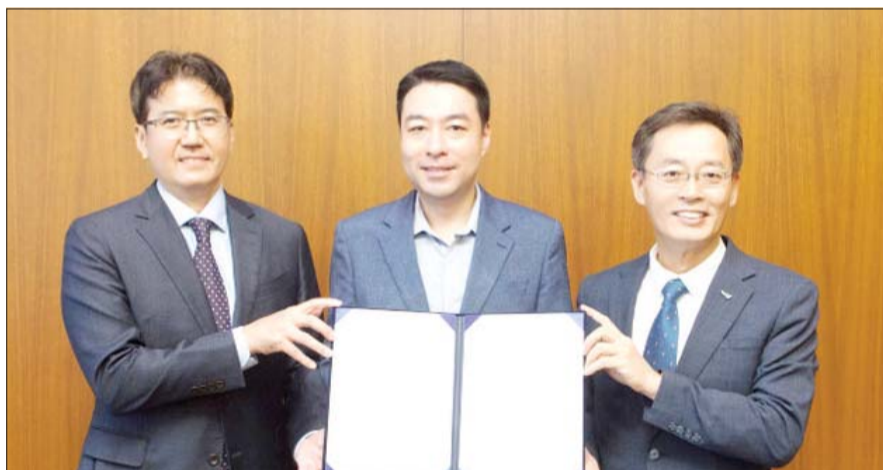
## 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소재 공급 본격화

아트임팩트·섬유개발연구원 MOU  
‘스카이펫’ 기반 섬유·패션제품 생산

SK케미칼이 지속가능 섬유·패션 시장에 화학적 재활용 소재 공급을 본격화하며 그린소재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SK케미칼은 20일 판교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 사옥에서 ‘화학적 재활용 섬유(원사·원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윤일 아트임팩트 대표이사,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김현석 SK케미칼 그린케미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3사는 SK케미칼의 화학적 재활용 소재인 ‘스카이펫(SKYPET) CR’을 사용해 높은 품질 수준의 재활용 섬유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케미칼은 원사·원단 개발에 필요한 ‘스카이펫(SKYPET) CR’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공급하고, 한국섬유개발연



(왼쪽부터) 김현석 SK케미칼 그린케미칼 본부장, 송윤일 아트임팩트 대표이사,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구원이 이를 원료로 다양한 원사를 생산한다. 아트임팩트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생산한 화학적 재활용 섬유 원사로 개발한 원단을 자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체 패션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는 SK케미칼의 플라스틱 순환 생태계 플랫폼인 ‘이

음’을 통해 추진돼 플라스틱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SK케미칼의 노력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SK케미칼은 앞으로 이번 친환경 사회적 기업, 섬유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와의 협업체럼 이음을 통해 플라스틱 순환생태계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플라스틱 순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좌우로 움직이는 독립형 후륜 조향 모비스, 2부품사 유일 ‘혁신 기술상’

북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 선정

현대모비스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주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독립형 후륜 조향시스템이 북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오토모티브뉴스는 글로벌 부품사들의 우수 혁신 기술을 발표하는 페이스 프로그램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페이스 프로그램은 현지시간 19일 북미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에서 북미국제 오토쇼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페이스 프로그램은 양산부문의 페이스 어워드와 선행부문의 페이스 파일럿의 총 2가지 분야로 나뉜다. 현대모비스는 이 중 페이스 파일럿을 최종 수상했다.

선행기술 분야에서 수상한 기업은 아시아 부품사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현대모비스의 독립형 후륜 조향시스



독립형 후륜시스템.

템은 약 2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올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다. 대형 세단이나 SUV, 고성능차나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후륜 조향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뒷바퀴가 좌우 각각 다른 방향으로 최대 10도 가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전자기계 장치인 조향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 소프트웨어 로직이 기술의 핵심이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차량이 회전할 때 선회반경을 약 25% 가까이 줄여, 고속주행으로 회전할 때 안전성과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도로 폭이 좁거나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국내와 유럽 시장에서도 유용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T ‘우주패스 패밀리’ 출시

SK텔레콤은 21일 구독 상품인 ‘우주패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서비스 ‘우주패스 패밀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주패스 패밀리’는 사용 중인 우주패스 all과 mini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최대 3명을 패밀리 멤버로 초대해 아마존 해외직구 무료배송,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을 멤버들과 나눠 사용하며 구독 상품 혜택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윤정 기자

## 한진칼, 2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주가안정 모색… 주주가치 제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주주 친화정책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한진칼은 2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취득은 200억원 규모다. 매입은 증권사 신탁 계약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진칼이 이번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가 안정을 통해 기업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한진칼의 주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진칼은 실제 기업가치를 감안할 때 현재 주가가 낮다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한진칼이라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올해 6월 진여 주식 매각에 따른 현금 확보로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SW 테스트 역량 입증

국제공인 모델 ‘TMMi’ 레벨3 인증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프트웨어(SW) 테스트 역량을 인정받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국제공인 모델인 ‘TMMi’ 레벨3 인증을 최종 승인 받고 인증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TMMi는 SW 테스트 조직 성숙도를 평가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SW 테스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다.

SK하이닉스는 레벨 2단계와 3단계에서 ‘FA’ 등급을 획득했다. 기준을 86% 이상 충족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세계 130여개 기업이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레벨 3인증 기업은 전세계 85개사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업계 최초로 레벨 3인증 획득 기업이 됐다.

/김재용 기자 juk@